

하늘사랑

www.kma.go.kr Vol.392

2014. February **2**

정책 클로즈업

2014년도 기상청 살림살이

풍경이 있는 여행

겨울여행, 어디가 좋을까?

맛있는 계절

정월 대보름의 세시 풍속과 음식

포커스

지구는 얼마나 더 더워질까?



기상청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2014년 달라지는 기상정책



기상정책으로 대한민국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기상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안정성이 강화됩니다

황사·미세먼지 통합 예보

기상예보 기간 연장

하루 **1** 번 발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하루 **4** 번 발표
환경·기상 통합 예보실
대기오염정보 (www.airkorea.or.kr)
기상청 (www.kma.go.kr)

7 일간 예보
주간예보 7일
동네예보 2일

10 일간 예보
중기예보 10일
동네예보 3일

예보발표 창구 단일화로
정보 이용 시 혼선 최소화



산업, 문화, 레저 등
기상정보 활용 증대

꽃가루 정보 서비스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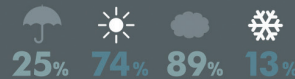
1·3개월 장기예보를 확률정보로 객관화

7 개 도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릉, 제주

93 개 시·군 확대
꽃가루 농도를 예측해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들의
실외 활동 지원

월 **3** 회 발표
3개 기준(많음, 비슷, 적음)의
단정 예보

월 **4** 회 발표
많음(○○%), 비슷(○○%),
적음(○○%)의 확률 예보
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의사결정 지원



이안류 예보 지역 확대

화산재 확산 예측정보 제공

1 개 지역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3 개 지역
부산 해운대 / 동해 양양 낙산 /
제주 중문 해수욕장

외국 자료
국제화산재정보센터 예측자료 의존
6시간 간격 이미지 정보

국내 자료
한국 화산재 확산 예측모델 개발
1시간 간격 이미지 정보

여름철 피서객의
안전과 생명 보호

생활, 건강, 산업 등
화산재 관련 피해 최소화

February **2**



Contents

KMA Special Issue

- 정책 클로즈업 2014년도 기상청 살림살이 · 02
- 풍경이 있는 여행 겨울여행, 어디가 좋을까? · 04
- 맛있는 계절 정월 대보름의 세시 풍속과 음식 · 06
- 대구의 명소 '닭똥집 골목'을 아시나요? · 08
- 날씨 에세이 통영에서 이순신 장군을 만나다 · 10
- 옥탑에서 맞는 사계절 · 12

KMA About

- 열린마당 꿈을 이뤄준 『응답하라 098 타임캡슐』 · 14
- 바이크 타고 씽씽~ 제설작업이 쉬워졌어요! · 16
- 겨울엔 실내스포츠가 최고! · 18
- 행복을 만드는 4시간의 기적 · 20
- 포커스 지구는 얼마나 더 더워질까? · 22
- 131Day! 국민과 가장 가깝게 소통하는 기상콜센터 · 24
- 2030 솔로탈출 LOVE IS... '끌림' · 26

KMA Hope

- 직장협의회 소식 기상청 소속기관 공무원 직장협의회 출범 · 28
- 날씨만화 동파가능지수 · 29
- 포토뉴스 · 30
- 퀴즈 · 32



기상청에서 발행한 「하늘사랑」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il.or.kr

2014년 2월호(통권 392호)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전화 (02)2181-0366 팩스 (02)836-5472
E-mail kimhy80@korea.kr 발행일자 2014년 2월 10일 발행처 기상청 발행인 고유하
발간등록번호 11-1360000-000079-06 편집장 정관영 편집기획 대변인실
디자인/인쇄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031)906-7735

‘기상청 살림살이’

기획재정담당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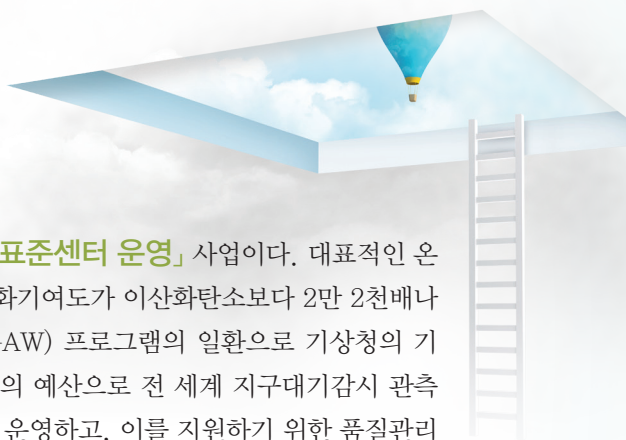
기상청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과 ‘기상업무 발전 기본계획(2012~2016년)’ 실천 등에 주안점을 두어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하였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가 재난관리체계 강화, 기후변화 감시·예측능력 확보 및 이상기후 대응 능력 강화, 기상기후산업 진흥 확대를 위해 편성된 기상청 예산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기상청의 신규사업은 연구개발사업 2개, 일반사업 2개 등 총 4개 사업으로, 재정당국과 국회의 인정을 받아 2014년부터 새로 수행하게 된다.

「**정지궤도기상위성 지상국 개발(R&D)**」 사업은 우리나라 최초의 정지궤도 통신-해양-기상위성인 천리안위성의 후속위성에서 생산되는 기상 및 우주기상 관측자료를 실시간 관제·수신·처리·분석·서비스하기 위한 국가기상위성센터 지상국 기술 개발 및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8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2018년까지 총 913억 원을 들여 현재 기상관측과 예보에 활용 중인 천리안 기상위성보다 향상된 고해상도시간해상도 3배(전구관측 30분→10분), 공간해상도 2배(적외영역 4km→2km)의 공간위성영상을 24시간 365일 중단 없이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되며, 확대된 기상산출물 산출(16종→52종) 및 예보를 지원하는 기술개발로 기상예보 정확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생산된 기상위성정보를 국가방재기관, 연구기관, 산업계 등에 제공하여 국민의 안전과 관련 산업의 경제가치 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2010년부터 바다와 접해있으면서 넓고 평평한 154,495㎡ 부지에 조성된 보성글로벌 표준기상관측소는 지난 2012년 1월에 세계기상기구 관측법 위원회(CIMO)로부터 관측의 표준과 현장관측 및 원격탐측 기술의 기준 제시를 위한 테스트베드로 선정된 바 있다. 「**보성글로벌 표준기상관측 활용연구(R&D)**」 사업은 세계 2위권인 307m 높이의 종합기상관측탑을 활용하여 관측기기별 오차특성 규명 및 관측기술의 개선, 남서해안 지역의 재해기상 감시 및 좁은 지역 내 기상현상의 이해, 수치모델 예측성 향상을 위한 연구를 국립기상연구소 주도로 수행하게 된다. 올해에는 7억 원의 예산으로 대기혼합층의 발달과 난류 특성을 분석하고, 연직기상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안개 발생·소멸 특성 연구, 관측자료를 활용한 기상청 예보모델의 경계층 예측 특성 분석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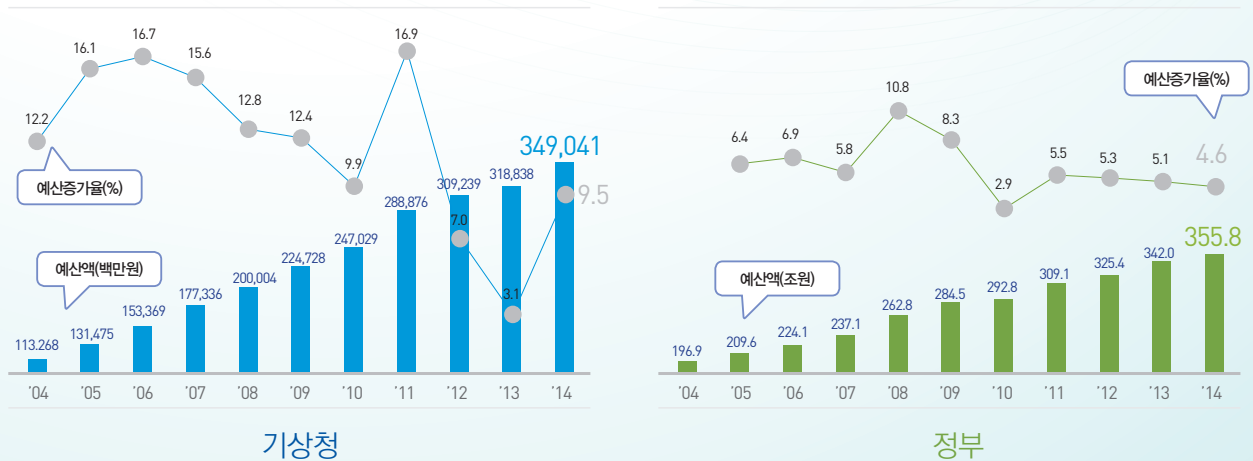
세 번째 신규사업은 「**세계기상기구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운영**」 사업이다. 대표적인 온실가스의 하나로, 대기 중 존재량은 적으나 지구온난화기여도가 이산화탄소보다 2만 2천배나 높은 육불화황에 대한 세계기상기구 지구대기감시(GAW)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상청의 기후변화감시센터에서 수행한다. 2014년도에는 4억 원의 예산으로 전 세계 지구대기감시 관측소에서 생산되는 관측자료의 품질보증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품질관리 절차를 개발하게 된다. 더불어 관측기술 향상을 위한 활동과 국제상호비교실험, 기술지도 및 교육훈련도 수행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상지원**」 사업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고해상도 산악 기상정보 지원 기술 개발, 동계올림픽 경기장별 상세예보 생산과 경기진행 지원을 위한 예보관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소치동계올림픽의 기상지원 참관과 동계올림픽 예보관 양성훈련 등으로 8,800만 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까지 경기에 필요한 관측인프라와 스마트 기상지원시스템, 경기장별 수치예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보관 양성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이 사업을 바탕으로 겨울철 산악예보의 정확도가 향상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기상선도국가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밑바탕이 될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기상청의 2014년도 예산규모는 3,490억 원으로 전년보다 302억 원(9.5%)이 증액되었다. 특히, 기상관측 및 예보 첨단화 등에 실질적으로 국민들을 위해 쓰이는 주요사업비가 2,529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269억 원(11.9%)이 늘어났다. 기상청은 올해 목표를 '가치를 창출하는 기상기후정보, 국민이 만족하는 기상서비스'로 정하고, 주어진 예산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 있는 기상서비스 실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2004~2014년 '기상청 - 정부 예산 추이'



겨울여행 어디가 좋을까?

편집진

겨울의 끝자락에 서 있는 지금, 추운 계절만이 전해주는 비경을 볼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 겨울이 가버리기 전에 소복이 내려앉은 눈꽃송이를 만나러 '눈레는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하늘까지도 하얗게 물들인 겨울 낭만이 가득한 기상명소 4 곳을 추천한다.

소원을 이뤄주는 신비한 기상현상, 마이산 솟는 고드름

같은 여행지라도 그날의 날씨에 따라 우리가 느끼는 감상과 추억이 달라진다. 똑같이 반복되지 않는 그날의 기상현상을 사진으로 순간 포착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추억의 시간을 그 느낌 그대로 영원히 간직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사진마니아들에겐 더없이 신비한 곳이 바로 마이산이다. 마이산 탐사, 은수사, 천황문 일대에서 정화수를 떠놓으면 얼음 기둥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솟는 고드름(역고드름)' 현상이 일어난다. 이 고드름을 보며 소원을 빌면 성취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만, 이는 사실 풍향·풍속·기온·기압 등 복합적인 기상조건이 만든 마술이다. 솟는 고드름은 20~35cm까지 자라 기묘묘한 마이산 탐사와 더불어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독특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마이산 솟는 고드름(2012 기상사진전 당선작)

안개와 기온차가 만드는 백색의 꽃, 덕유산 상고대

영하의 온도에서도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방울이 나무 등의 물체와 만나 생기는 것이 상고대이다. 호숫가나 고산 지대의 나뭇가지 등에는 밤새 내린 서리가 하얗게 얼어붙어 마치 눈꽃처럼 피어난다. 이러한 상고대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무주 덕유산이다. 상고대는 늦가을과 초겨울, 그리고 이른 봄에 가장 많이 내리는데 안개가 많고 기온차가 심한 해발 1,500m 안팎의 고산지대에서 주로 볼

겨울철 기상사진 잘 찍는 Tip

눈 오는 날에는 노출 스텝을 +1~2 정도 오버로 찍는다. 눈송이를 제대로 표현하려면 100mm 이상의 망원렌즈로 찍는 것이 좋다. 동그란 눈송이를 표현하려면 1/125초 이상의 빠른 셔터스피드로, 눈보라 같이 표현하려면 1/30초 이하의 저속으로 맞춘다.



수 있다. 덕유산이 해발 1,500~2,000m 사이의 산림한계를 일컫는 ‘아고산대(亞高山帶)’ 지형이기 때문이다. 상고대가 핀 정상에 올라 눈 아래 펼쳐지는 파노라마 조망을 바라보면 감탄이 절로 난다.



덕유산 상고대(2011 기상사진전 당선작)

바람이 만든 청정에너지,
대관령 · 매봉산 풍력발전단지

대관령 정상에 서면 몸이 날아갈 듯한 강풍을 경험할 수 있다. 해발 700m 이상에 위치한 대관령 풍력발전단지는 자연의 바람으로 발전기를 돌려 약 5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한다. 특히 그 규모와 경치가 장관이어서 영화나 드라마의 촬영지로도 각광받고 있다. 매봉산은 해발 1,303m로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의 분기점에 위치해 있고, 전국 제일의 고랭지 채소단지가 만들어져 있다. 이곳 역시 풍력발전단지 조성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국적인 풍경을 자랑해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대관령의 목설(2010 기상사진전 당선작)

동해의 아침을 깨우는 해돋이 명소,
강릉기상레이더

자연과 가장 가까운 곳, 전망이 가장 좋은 곳에는 왜 종종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뜻말이 붙어있는 걸까? 생각해 본 적 있다면, 산 위에 축구공을 닮은 둥근 건물이 뿔치 궁금한 적이 있다면, 놓치기 아까운 풍경과 알아두면 좋은 자연과학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강릉기상레이더로 떠나보자. 이곳은 울릉도와 독도까지 관측하여 지정학적으로도 가치가 있고, 동해안 주변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산불 및 대설, 홍수 등 주변 상황을 감시하는 최적의 장소이기도 하다. 특히 9층 전망대에서 아름다운 겨울바다와 함께 감상하는 해돋이는 그야말로 일품이다.



강릉기상레이더



정월 대보름의 세시 풍속과 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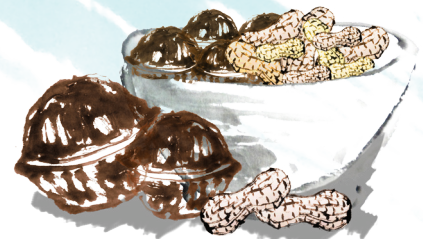
홍미란 / 이천기상대

우리나라는 양력과 음력 두 번 설을 친다. 그래서 나이 한 살 더 먹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에, 굳이 음력설에 먹는 떡국만 나이를 먹는 거라고 말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설이 지나고 보름이 되면 '정월 대보름'이 찾아온다.

대보름은 여러 가지 다양한 세시 풍속 행사가 열리는 큰 명절이다. 설날이 한 해의 시작을 기념하고 계획을 세우는 날이라면, 대보름은 밝음과 풍요를 상징하는 날이다. 또한 설날이 가족과 집안 중심의 명절이라면, 대보름은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하는 집단적인 명절이라고 할 수 있다. 정월은 한 해가 시작되는 첫 달이고 서서히 농사를 준비하는 때이다.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둥근 달이 처음으로 떠오르기에, 농경 사회에서는 이날을 대명절로 여겨 풍년과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였다.

정월 대보름에는 건강과 풍년을 기원하는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부럼 깨물기, 귀밝이술 마시기, 오곡밥이나 약밥 해먹기, 더위팔기 등 개인적으로 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달맞이, 쥐불놀이, 줄다리기 등 집단적으로 하는 행사까지 아주 다양하다.

먼저 정월 대보름에 먹는 세시 풍속으로 **부럼 깨물기**부터 소개하겠다. 부럼은 밤이나 호두, 은행, 잣, 땅콩 같은 견과류를 말하는데 이를 딱 소리가 나게 깨물면 1년 동안 부스럼이 나지 않고 치아가 튼튼해져서 건강한 해를 보낼 수 있다고 여겼다. 그리고 귀밝이술은 말 그대로 정월 대보름날 아침에 데우지 않은 찬 술을 마시면 귀가 밝아지고 1년 동안 좋은 소식을 듣는다는 술이다. 그래서 이날만큼은 아이들에게도 조금씩 먹였다고 한다. 농경 사회였던 우리나라에서는 정월 대보름이 되면 마을마다 각종 행사가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때 귀가 밝아야 농사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다는 뜻에서 귀밝이술을 마셨던 것 같다.



또한 정월 대보름에는 **오곡밥**이나 **약밥**을 지어 먹었다. 오곡밥은 쌀, 보리, 조, 수수, 팥 등의 다섯 가지 이상의 곡물을 섞어 지은 밥이다. 약밥은 물에 불린 찹쌀을 시루에 찐 뒤, 꿀이나 설탕, 참기름, 대추 등을 찌서 섞고, 다시 간장, 밤, 대추, 계피, 꽃감, 잣 등을 넣어 시루에 찌서 만든다.



이날에는 세 집 이상 성씨가 다른 집의 밥을 먹어야 운이 좋다고 하여 이 집, 저 집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드리고 밥을 얻어먹었다. 이날이면 어머니들이 하루 종일 손님을 대접하느라고 분주했고, 남자들도 아홉 끼를 챙겨 먹느라고 고생했다. 거지들도 이날만큼은 배를 곯지 않았다고 하니, 1년 중 가장 풍요로운 날이 아니었나 싶다.

정월 대보름날에 했던 놀이도 참 다양하다. 전날에는 온 집안에 등불을 켜 놓고 밤을 샌다. 이를 ‘보름밤 지킴이’ 라고 하는데 이날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샌다 하였다. 혹 자는 아이가 있으면 눈썹에 쌀가루나 밀가루를 발라 놓아 아이를 놀래게 했다고 하니, 자고 일어난 아이가 보일 반응을 생각하면 절로 웃음이 나온다.

또한 정월 대보름 날 아침에는 더위를 파는 풍습이 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친구의 이름을 불러서 대답하면 “내 더위 사가라.” 라고 말을 한다. 이렇게 더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팔면 그 해에 더위를 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눈치 빠른 친구가 대답 대신 “내 더위 사가라!”라고 선수를 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더위를 팔려는 사람이 되레 더위를 사게 된다.

정월 대보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달맞이’를 했다. 달맞이는 초저녁에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달을 맞는 것을 말하는데, 달을 먼저 보는 사람이 길하다고 한다. ‘달집태우기’ 풍속도 대보름날 밤에 했는데, 짚이나 솔가지 등을 모아 언덕이나 산 위에 쌓아 놓고 보름달이 떠오르기를 기다렸다가 불을 지른다. 피

어오르는 연기와 더불어 달을 맞고 불이 다 꺼질 땐 환성을 지르기도 한다.

‘쥐불놀이’는 논둑과 밭둑을 불태우는 놀이다. 잡초를 태워 쥐를 잡고 해충을 죽여서 풍작을 기원하는 동시에, 봄에 새싹이 돋을 땐 거름이 되도록 하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햇불싸움’은 청소년들의 놀이로서 저녁이 되면 두 마을이 다리를 사이에 두고 편을 갈라서 햇불을 들고 노는 싸움이다. 아이들은 정월 대보름이 되면 겨울 내내 띄우던 연을 하늘로 날려 보내기도 한다. 이것을 ‘액막이’라고 하는데, 한 해의 액운을 멀리 날려 예방하고 복을 기원하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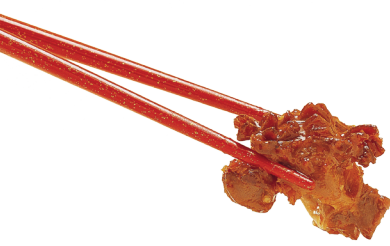
달맞이가 끝나면 벧짚을 이용해 만든 줄을 양편으로 나눠서 당기는 ‘줄다리기’를 하였다. 윗마을과 아랫마을로 편을 나누어 겨뤘는데, 줄다리기에서 이긴 마을이 풍년이 든다고 하여 기를 쓰고 줄을 잡아당겼다. 때로는 남자와 여자가 편을 갈라 줄다리기를 했는데, 이때는 여자들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고 하여 남자들이 슬쩍 쳐주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사자놀이, 석전, 고싸움, 쇠머리대기, 동채싸움 등 많은 놀이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로서 다양하고 많은 전통 행사들이 있었던 정월 대보름이 점점 잊혀져가는 것은 너무나 아쉬운 일이다. 그러나 다행히 전통문화를 찾아내서 이를 그 지역의 축제로 진행하는 곳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올해도 각 지역에서는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정월 대보름을 맞아, 우리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



- ① 널뛰기
- ② 달집 소원 빌기
- ③ 달집태우기

사진제공 : 김영식(통영시 한산면)



대구의 명소 '닭똥집 골목' 을 아시나요?



이수미 / 대구기상대

만 원이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혼자 극장에 가서 영화 한 편 보기? 둘이서 우아하게 마실 수 있는 브랜드 커피 두 잔? 하지만 세 명 이상 모이기 시작하면 예산상의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곳만은 다르다. 만 원이면 한 접시 가득 담겨져 나오는 음식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만 원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닭똥집이다.

대구 평화시장에 위치한 닭똥집 골목은 주중과 주말 구별 없이 시장 입구에서부터 시내 부럽지 않은 북적거림을 느낄 수 있다. 동대구역과 경북대학교가 인접해 있어 주머니가 가벼운 학생들은 물론 시민들의 발길도 잦은 곳이다.

닭똥집 골목은 1972년부터 시작되었다. 닭만 팔다보니 닭똥집이 많이 남아서 어떻게 할까 늘 고민스러웠던 사장이 우연히 닭똥집을 튀겨서 서비스로 내놓기 시작했는데, 의외로 손님들의 호응이 좋았던 것이 발단이 됐다. 서비스로 시작한 닭똥집 요리가 값싸고 맛있으니 알음알음 소문이 나서 하나의 요리로 완성된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의 '대구스타일' 닭똥집 골목이 등장하게 되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시장 골목도 달라졌는데, 젊은 세대의 입맛에도 맞춰지고 간판도 일반적인 'oo통닭'에서 유명한 영화 제목과 뮤지컬 제목 등으로 트렌드가 반영돼 세련되게 변하였다. 메뉴는 퓨전화 되고 다양해졌지만 착한 가격만은 그대로이다. 그래서 식당은 늘 "양념 반, 간장 반이요!" 라는 소리들로 북적거린다. 1970여 년부터 시작해 4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이곳은 비록 '대구의 10대 味'에는 안타깝게 들지 못했지만, 맛 좋고 저렴한 먹거리로 대구시민들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젊은 사람들은 저렴한 가격에 푸짐하고 고소한 맛을 자랑하는 닭똥집을 먹기 위해 찾아가고, 어르신들은 옛날 시장 골목의 향수를 찾아 모여들고 있다. 양념 반, 프라이드 반 닭똥집을 시키면 잘 튀겨진 고구마까지 푸짐하게 한 접시 나온다. 매콤하고 달콤하며 고소하기까지 한 양념에 바삭한 튀김옷을 입히고 나면 쫄깃한 식감의 닭똥집이 완성된다. 닭똥집은 닭 모이주머니인데 지방은 적고, 단백질, 비타민 B, 철분 등이 풍부하기에 영양적으로도 꽤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다.



혹시 닭똥집의 다소 질긴 식감 때문에 못 먹는 사람이 있다면, 찜닭을 맛보길 권한다. 여기서 먹는 찜닭은 고춧가루로 양념을 하는데, 탱글탱글한 당면에 매콤하게 양념된 닭고기가 잘 어우러져 한 푼배기 가득 담겨 나온다. 찜닭을 다 먹고 나면 양념에 밥도 비벼서 주니, 술안주 뿐 아니라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다.

또한 닭똥집 골목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착한 골목’**으로 선정되었다. 골목 전체 음식점들이 매출액 일부를 매월 정기적으로 기부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서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일에도 동참할 수 있으니, 이거야말로 일거양득이 아닐까?

동대구역에서 걸어 10분 거리이니, 대구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닭똥집을 맛보러 한 번쯤 가보길 바란다. 오랜 전통의 맛과 상인들의 푸짐한 인심을 경험할 수 있을 테니까.

통영에서 이순신 장군을 만나다

‘통영’이란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 흥미롭게도 대한민국 국민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인 충무공 이순신이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이순신의 공식 직함은 전라좌수영의 좌수사였다. 당시 남해안을 방비하는 수영은 다섯 곳이었는데 경상도를 나누어 경상좌수영과 우수영, 전라도를 나누어 전라좌수영과 우수영, 그리고 충청수영이 있었다. 수영별로 독립활동을 했는데, 전쟁이 발발하자 통합군의 필요성을 느낀 이순신이 다섯 개 수영을 통합하는 삼도수군통제영을 만들고 초대 통제사로 부임하였다. 그 최초의 통제영진을 지금 통영의 한산도에 두었는데, 통영이란 이름은 조선의 삼도수군통제영이란 관청의 줄임말이다. 그래서 통영은 이순신을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게다가 이순신을 세계사의 인물로 우뚝 서게 한 최고의 업적인 한산해전이 통영앞바다에서 벌어졌고, 통영한산도에서 통제사로서 3년 8개월이나 근무하였으니 통영은 이순신의 얼이 깊숙이 서려있는 ‘충절의 도시’인 것이다.

이순신이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이 바로 난중일기이다. 난중일기는 1592년 임진왜란 때부터 1598년 노량해전까지의 기록을 담고 있다. 이 안에는 남동풍이 부는 시기를 예측하여 대승을 거둔 적벽대전, 맑은 날을 정확히 예측하여 2차 세계대전의 양상을 바꾼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날씨를 활용한 이야기들과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이순신의 난중일기에는 날씨와 관련된 표현이 총 334회 등장한다. 맑음(晴), 비(雨), 강풍(大風) 등의 단순한 표현뿐 아니라, 날씨에 따른 개인적인 감정까지 세심하게 나타나있다. 한산대첩을 하루 앞둔 1592년 7월 7일의 일기를 살펴보면 ‘동풍이 크게 불어 행선할 수 없으므로 당포에서 밤을 지내다.’라는 표현이 나온다. 동풍이 약했다면 한산대첩의 날짜가 하루 당겨졌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1594년 7월 13일에는 ‘날씨를 점치니 장차 큰비가 내릴 모양으로 농사가 걱정이다.’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이어 다음날엔 ‘어제 저녁부터 비가 삼대(麻)같이 쏟아진다.’라는 글이 있다. 정말 유능한 기상예보관을 휘하에 둔 것 같다. 또한 ‘간밤에 밤새도록 비가 퍼부어 개천이 철철 넘쳐서 금세 농민의 소망이 만족하였다.’, ‘셋바람이 몹시 불었다. 곡식에 해로울 것이 걱정된다.’ 등의 표현이 등장하는데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컸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박정욱 / 통영시티투어



- 1 세병관
- 2 제승당





③ 충렬사
④ 통영 고지도



다시 통영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1598년에 임진전쟁이 끝나자 조선 정부는 6년 동안 삼도수군통제영을 이리저리로 옮겼다. 하지만 일본의 침탈을 방어하는 최적지로 이순신의 지략이 옳았음을 깨닫고, 1604년 지금의 통영에 삼도수군통제영을 정식으로 세웠다. 1895년에 고종 임금이 군제를 바꾸면서 폐영을 시켰으니, 통영은 조선 중후기 약 300년 동안 남도를 방어하는 최대의 군영도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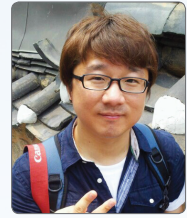
삼도수군통제영의 중심건물인 세병관은 조선이 남긴 최고의 단일 목조건물로서, 부속건물만 100여 동이 있었던 지방관아로는 당시 최대의 성이었다.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에 세병관을 제외하고 모든 건물이 훼손됐는데, 문화재청이 13년의 노력을 들여 일부를 복원해 그 위용을 과시하고 있다. 통영을 여행한다면 이곳을 반드시 방문해 보기를 적극 추천하는 바이다. 또한 세병관이 위치한 자리는 통영의 고지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용의 형상 중심에 위치해있는 명당자리이다. 텀으로 명당의 기(氣)도 받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삼도수군통제사라는 직책은 어느 정도의 지위였을까? 흔히 우리는 이순신을 칭할 때, 지금의 군제와 비교하여 제독이나 장군 등으로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조선의 직제는 전방사령관, 즉 군권을 가진 자가 행정권을 함께 행사했다. 또한 세금을 거두는 조세권, 사람을 벌할 수 있는 사법권도 함께 가지고 있었으니 삼도수군통제사는 지금의 장군이나 제독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막강한 권력을 지닌 총독이 분명하다. 따라서 그 당시 통영은 한반도 남쪽 끝의 조그만 도시가 아닌, 한양 다음의 도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처럼 통제사의 권한이 너무도 막강하여, 그 권한을 제어하기 위해 임기는 2년 단임제였고 연임조차도 금하였다. 약 300년 동안 거쳐 간 208명의 통제사들의 평균 임기가 1년 6개월도 안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제 여러분은 상상의 나라를 펼쳐보길 바란다. 당시 통제사들은 많은 기술들과 함께 부임하여 자연스럽게 최신 고급문화를 퍼뜨렸을 것이다. 또한 통영은 음식, 복식,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선 최고의 문화를 누렸으며 삼도를 통제하였으니 영남, 호남, 충청, 삼남의 문화 교류도 활발했음은 당연지사이다. 이렇듯 조선 최고의 지방 도시였고 300년간 누렸던 고급문화는 뿌리가 되어 윤이상, 박경리, 유치진, 유치환, 김상옥, 전혁림, 김용익 등 대한민국 근대사를 주름잡는 최고의 예술가들을 배출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영을 단순히 남도의 먹거리 좋고 풍광 좋은 어촌이나 항구도시로만 알고 있는데, 통영의 역사와 문화의 뿌리는 이처럼 대단히 크고 깊다. 그 뿌리의 단초는 충무공 이순신이니 통영 사람들이 가지는 그에 대한 애정은 지나칠 정도로 깊은데, 이러한 연유임을 알면 충분히 이해될 것이다.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의 이름을 지은 사람이 이순신이라니 얼마나 자랑스럽겠는가!

옥탑에서 맞는 사계절



신춘희 / 통신 엔지니어



만약 급히 전화를 걸어야 하는 상황인데 휴대 전화가 연결이 안 된다면? 정말 이때만큼 답답한 순간도 없을 것이다.

나의 직업은 이동통신사의 기지국과 중계기를 관리하는 엔지니어다. 위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 업무이다. 통신서비스 관련 장비는 365일 연중무휴로 가동된다. 휴대 전화가 잠시라도 멎통이 되면 큰일이기 때문에, 장비를 유지 및 보수하는 사람들도 주말과 공휴일, 밤낮 가릴 것 없이 근무한다.

이렇게 쉬지 않고 가동되는 기지국과 중계기 등의 장비들은 옥탑에 있는 경우가 많다. 바깥에 위치해 있다 보니, 그만큼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장비의 70~80% 정도가 건물의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2층인 일반 주택부터 25층 이상인 아파트, 또 10층 오피스텔 등 그 높이도 다양하다.

일하기 좋은 계절이라면 단연 **봄과 가을**이다. 하지만 지구온난화의 영향 때문일까? 점점 여름과 겨울이 길어지고, 상대적으로 봄과 가을은 줄어드는 것 같다. 여름엔 너무 더워서 얼굴과 팔이 까맣게 타고, 땀은 비오듯이 흘러 수분 보충하느라 정신이 없다. 더욱이 습도가 높아 끈적끈적한 날씨이면 불쾌지수도 올라가서 짜증이 엄청 밀려온다. 그런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나서야 “날씨 참 좋다!”라고 절로 말하게 되는 가을이 오는데, 아쉽게도 금세 지나가버린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어 지금 같은 **겨울**이 오면 준비할 것들이 많아진다. 우선 옷은 두툼하게 입고 장갑, 귀마개, 마스크, 핫팩 등으로 무장해야 한다. 이렇게 방한 도구를 모두 갖추어도 밖에서 일할 때 추운 건 어쩔 수가 없다. 특히 오래 밖에서 작업해야 하는 경우엔 추위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져 몸이 굳어지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아진다.

또한 눈이라도 내리면, 우선 옥상에 쌓인 눈부터 쓸어내고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옥상은 출입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밟힌 자국 없이 그대로 쌓여 있는 경우가 많다. 10cm 넘게 쌓이는 경우도 많은데, 그나마 이번 겨울은 눈이 많이 내리지 않고 예년보다 큰 추위 없이 지나가는 듯해 다행이다. 작년 겨울은 정말 눈 치우다 기운을 쭉 빼기 일쑤였다.



겨울엔 특히 유지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엔지니어들과 기지국이나 중계기를 설치하는 사람들, 그리고 시설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 고생을 한다. 인터넷 및 케이블 방송시설도 바깥에 있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추위와 싸워야 하는 건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람들만 힘든 게 아니라는 점이다. 기계 또한 날씨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오작동을 일으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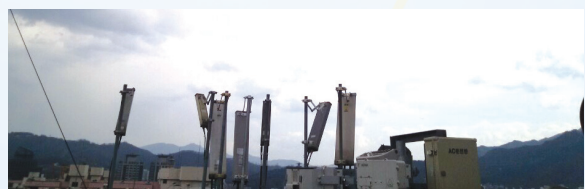
30도가 넘는 **한여름** 날씨에는 장비들이 너무 열을 받아서 고장이 나는 경우가 쉽게 생긴다. 물론 처음 출시될 땐 고온과 저온의 상황을 준비해서 나오지만, 연식이 오래되거나 하면 고장이 날 수가 있다. 또한 눈과 비, 태풍도 일할 때 상당한 부담을 가중시킨다. 비가 내리고 바람까지 불면 더더욱 힘들어지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지하에 있는 장비들이 건물과 같이 잠기는 경우도 생긴다. 전자제품인 장비시설에 빗물이 들어가면 손상을 입기 마련이다.

이렇게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날씨와 상관없이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서 항상 차 안에는 우산과 파라솔, 그리고 비가 정말 많이 올 경우에 쓸 장비보호용 비닐을 구비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들은 비를 맞더라도, 장비들은 절대 물 한 방울 맞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기계는 금속 재질이기에 차가워지면 수축이 되고 뜨거워지면 팽창을 한다. 또한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추운 겨울철에는 더욱 차가워지게 된다. 그래서 차가운 금속과 공기 중의 습기가 만나면 물방울이 생겨 기계에 녹이 슬거나 전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아주 추운 날씨에는 장비를 점검한다고 문을 오래 열어 놓다가 중계기에서 저온 알람이 울릴 때도 있다. 장비 자체에서 발생하는 열이 상당한데도 역부족이다. 기계도 찬바람을 쐬면 감기에 걸린 것처럼 힘이 빠져 출력이 나가지 않는 상황이 간혹 발생한다. 그러면 전파를 방사하지 못해 우리가 두려워하는 휴대전화 속의 안테나 표시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기계다 보니, 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 필수이다. 우선 예보에 비나 눈 소식이 있으면, 보호 장비를 준비하거나 그때를 피해 작업을 수행한다. 상황이 촉박한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날씨를 확인해서 최대한 양호할 때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별써 이 일을 시작한 지 10년째이다.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예보를 확인하며 일한 시간과도 같다. 그동안 예전에 비해 기상예보가 많이 정확해졌음을 체감하게 되었다. 또한 예보가 점점 세분화되어 일하기도 많이 수월해졌다. 덕분에 미리 잘 준비하며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항상 수고하는 기상청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꿈을 이뤄준

『응답하라 098 타임캡슐』



김수진 / 동두천기상대

“*확 창자를 빼고고 젓갈을 담가볼랑게!*”

빠듯한 생활에 지친 직장인들에게 대학농구, 서태지와 아이들 등의 향수를 불러일으킨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 나와 화제가 됐던 대사이다. 이렇게 찰진 대사들이 많았던 이 드라마는 전작 <응답하라 1997>에 이어 큰 인기를 끌며, 2013년에도 대한민국을 ‘응답하라 열풍’으로 들끓게 했다. 그리고 그 열풍은 동두천기상대까지도 불어들었다. 후우~!



동두천기상대의 『응답하라 098 타임캡슐』에서 098은 동두천 관측지점 번호를 말한다. 작년 ‘하늘사랑’ 3월호에도 이 타임캡슐이 소개된 적이 있듯이, 직원들의 자기계발 의욕을 고취시켜 창의적인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원성취 프로젝트이다. 이번에는 어떤 소원을 담고 이루려고 했는지, 2013년 한 해 동안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먼저 처음으로 타임캡슐에 소원을 적던 날이 생각난다. ‘가족여행 가기’, ‘외국어 공부하기’, ‘자격증 따기’ 등 직원들 모두 각자의 소원을 적어 넣는 것만으로도 이미 다 이룬 것처럼 들렸었다. 나도 이왕 하는 거 꼭 이뤄야겠다는 의지와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 그리고 막내의 패기까지 더해 소원을 적어냈다. 만인의 평생 숙제인 ‘다이어트’와 ‘영어점수 획득’을 적었는데, 그만 타고난 식탐과 운동 부족으로 인해 다이어트는 일찌감치 멀어지고 말았다. 그렇게 초반의 파이팅 넘치던 의지와 자신감이 사라져가는 듯했다.

하지만 그때, 기상대 식구들의 모습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점심시간마다 운동을 빼먹지 않고, 바쁜 업무 중에도 짬짬이 책을 들여다보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다시 한 번 힘을 내보기로 했다. 게다가 20만 원이 넘는 비싼 시험 응시료를 결제하고 나니 자연스럽게 의지도 되살아났다. 덕분에 더 열심히 기출문제도 풀고, 외국인 선생님과 영어수업도 진행했다. 그 결과,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시험 결과가 다행히 좋게 나왔다.



- ① 상반기 소원함 개봉
- ② 하반기 소원함 개봉
- ③ 하반기 소원 성취 심사



그렇지만 넘어야 할 산이 또 하나 있었다. 바로 프레젠테이션! 소원의 난이도, 달성도뿐만 아니라 발표력까지도 심사하기 때문에 소원 성취 우수자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남은 것이다. 한 명 한 명 발표가 이어질수록 투표의 열기는 더해갔다. 그리고 모두가 긴장한 가운데, 평생 과업인 '다이어트'에 성공한 임명진 주무관이 1등, 반쪽짜리지만 영어점수 획득에 성공한 내가 기쁘게도 2등을 차지했다.

상반기 『응답하라 098 타임캡슐』 프로젝트가 우수자들에게는 보람을, 다른 직원들에게는 또 다른 동기를 전해주자 하반기엔 더욱 소원들이 알차게 모아졌다. '아들 장가보내기', '2세 갖기'처럼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소원들이 속속 등장한 것. 나 역시도 '운전면허 취득'이란 새로운 목표를 더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위기가 찾아왔다. 여름철 잦은 비상근무와 각종 업무들이 있는 하반기는 말 그대로 '한창 일하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소원을 이루려고 세워뒀던 계획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꾸 뒤로 밀리자, 거의 자포자기의 심정까지 가고 말았다.

그런데 이렇게 무기력해졌던 나의 전투력을 되살려준 계기가 있었다.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과 말만 하다가는 절대로 운전면허를 못 딸 것이라면서, 내가 면허를 따면 돈이라도 주겠다고 내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순간 욕하는 마음과 함께 오기가 발동했다. 쇠뿔도 단김에 빼겠다고, 그날 바로 집 근처에 있는 운전면허학원에 등록하고 영어시험도 접수했다. 그리고 '내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필코 보여주겠노라!' 다짐했다. 그래서 부지런히 주말마다 3~4시간씩 교육

을 듣고, 아버지를 졸라 운전연습도 했더니 드디어 오랜 숙원이던 면허를 딸 수 있었다. 또한 영어시험도 처음에 세웠던 목표를 보란 듯이 달성했다.

하반기 프레젠테이션은 상반기보다 더욱 치열했다. 소원의 난이도와 달성도 모두 높았고, 직원들의 발표력도 좋았다. 모두가 높은 점수를 받은 가운데, 아주 근소한 차이로 두 가지 소원을 다 이루었다는 점을 인정 받은 내가 1등, 기능사 자격증 시험을 합격한 윤건희 주무관이 2등을 차지했다.

개인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응답하라 098 타임캡슐』에 참여해 보고 나니, 2013년의 끝자락에 섰을 때 '내가 이렇게 이뤄냈구나. 올해 꽤 괜찮았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뿌듯했다. 또한 칭찬과 포상의 힘이 참 대단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이루어냈을 때의 그 성취감도 크지만, 그것에 대한 칭찬 한마디를 들었을 때의 기쁨은 마약과도 같아서 칭찬받을 일을 계속 찾게 되는 것이다. 정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응답하라 098 타임캡슐』은 단순히 자기계발과 지식·재능 함양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동안 모두가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식구들의 소원 성취를 돕거나 격려하면서 끈끈한 유대감과 소통, 그리고 화합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이로써 '기상대 분위기 업, 개인 역량도 업!' 됐으니 이것이 바로 일석이조가 아닐까? 2014년에도 더욱 밝은 조직문화가 동두천기상대를 넘어 기상청 곳곳에 모두 전해지길 바란다.

바이크 타고 씩씩~ 제설작업이 쉬워졌어요!



강성란 / 대관령기상대

“너무 좋겠어요.”

“산에서 근무하느라 힘들겠네요.”

대관령에서 근무한다고 하면 이렇게 안쓰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대관령기상대 근무가 두 번째인 난 이번 발령이 무척 다행이고 감사했다. 강릉에서 40분 내외로 출퇴근이 가능해서 엄마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겨울철에 눈이 와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에서 제설이 가장 잘 되는 지역이다 보니, 10cm 정도의 눈이 와도 텅텅할 만큼 도로 이용에 큰 지장이 없다.

작년 가을에 발령을 받아 구불구불한 대관령 길을 출근할 때 정말 단풍을 원 없이 보았다. 산 정상에서부터 내려오는 아름다운 단풍을 한 달 내내 구경할 수 있어서 출근길은 그야말로 몸과 마음이 힐링되는 시간이었다. 한겨울이 된 지금도 제설작업이 잘 되어 있어 출퇴근이 수월한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 바로 기상대에 쌓인 눈 치우기이다.

2008년 1월, 처음 대관령기상대에서 근무하던 때에 30cm의 눈이 예보된 적이 있었다. 일어나 보니 온 세상이 하얗게 물들어 있고, 차들이 엉금엉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운전이 서툰 나는 두 손 모아 핸들을 잡고 조심조심 고속도로로 들어섰다. 제설차가 눈을 치우기 무섭게 다시 쌓여, 아무리 전국 최고인 제설기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역부족이었다. 깜빡이를 커놓고 체인을 감는 사람들, 체인을 팔기 위해 서있는 차들... 정말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닐 정도로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스노타이어를 믿고 천천히 차를 몰아 안전하게 기상대에 도착했다.

대관령기상대는 도로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40~50도 경사의 진입로를 약 50m 올라와야 한다. 그래서 눈이 오면 민원인을 위해 진입로의 눈을 치우는 것이 급선무다. 그 날도 대장님, 관사에 쉬던 직원, 비상근무 직원 등 7명이 삽과 제설도구를 들고 눈을 치



우고 있었다. 나의 차를 보신 대장님이 “버스 타고 오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차가 올라갈 수도 없지만, 주차장에 차 댈 곳도 없네. 그냥 밑에 세워둬.”라고 하셨다. 대관령 도로에 차를 세워놓았다가, 눈이 덮여 자동차인지 모르고 제설차가 그냥 치고 갔다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조금 걱정은 됐지만 차를 밑에 두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정말 눈이 많이 온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싶은 날이었다. 방송을 통해 눈이 40~50cm 내렸다고 들을 때는 ‘오~ 많이 왔네.’라고만 생각했지, 눈으로 보지 않으면 실감이 나진 않았다. 그러나 직접 그 광경을 보니 ‘보지 않고는 말하지 말라!’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상상을 초월했다. 1주일 전에도 4일 연속으로 총 40cm의 눈이 와서 채 녹지도 않았는데, 밤부터 12시간 동안 40cm의 눈이 더 왔으니 ‘도로와 인도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많은 눈이 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알 수 있었다.

그날 난 교대근무 중이어서 사무실 민원전화를 받으며 예보업무를 했는데, 나를 제외한 모든 직원들은 종일 밖에서 눈을 치워야만 했다. 주차장이 그리 넓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날따라 서울광장이라도 된 듯 눈은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었다. 퇴근 무렵, 하늘도 힘을 잃었는지 드디어 눈이 약해졌고, 직원들도 손을 후들 후들 떨며 녹초가 되어야 마무리할 수 있었다.



대관령에 다시 오면서 그때 그 겨울이 떠올랐고, ‘올해도 눈과의 전쟁이 시작되겠구나.’ 생각했다. 최근에 제설용역 예산이 확보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필요할 때는 용역을 부르지 못해 계속 직원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얼마 전 본청에서 전화가 왔다. 놀랍게도 바이크 구매 예산을 마련했다는 소식이었다. 오호! 정말 생각지도 않게 제설용 바이크가 생긴 것이다. 이곳저곳을 알아보고 우리 기상대에 딱 맞는 CAN-AM Outlander 1000CC 모델 바이크를 구입했다. 사진으로 봤을 땐 몰랐는데, 실제로 보니 아주 크고 근사했다. 사실 기상대 앞 국립 종자원에서는 직원 한 명이 트랙터로 손쉽게 눈을 치우는데, 우린 넷이서 눈삽으로 힘겹게 치우던 모습이 초라해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짜잔! 바이크가 온 후 드디어 제설 작업 풍경이 확 바뀌었다. 이젠 직원 모두가 눈삽을 들고 나갈 필요가 없어졌다. 바이크로 몇 번 왔다 갔다 하니 주차장의 눈도, 진입로의 눈도 금세 말끔히 치워졌다. ‘바이크 타고 씽씽~’만 하면 되니 제설작업이 무척이나 쉬워졌다. 청장님을 비롯하여, 바이크 구입을 위해 힘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겨울엔 실내스포츠가 최고!



원효성 / 광주청 예보과

점심을 게 눈 감추듯 먹고 난 시각 12시 11분. 청사 지하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에 고민이 가득하다.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오른편 대강당에서는 리듬에 맞춰서 ‘똑딱, 똑딱’ 탁구 소리가 하모니를 이루고, 왼쪽 당구장에서는 ‘탁, 탁’ 파워 넘치는 소리가 나를 유혹한다.

‘그래! 오늘은 똑딱 소리가 왠지 끌리는 걸~’

오른쪽 강당 문을 연다. 역시나 지난해 11월에 결성된 광주지방기상청 탁구동호회 회원들 몇몇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탁구를 치고 있다. 그런데 다른 쪽 테이블에서는 요즘 탁구에 흠뻑 빠져있는 J사무관이 비번인데도 나와서 탁구를 치는 모습이다. 내 탁구 실력은 이번에 동호회를 가입한 초보 중 생(Live) 초보지만 열정은 국가대표급이다. 그런데 이때, J사무관이 나를 자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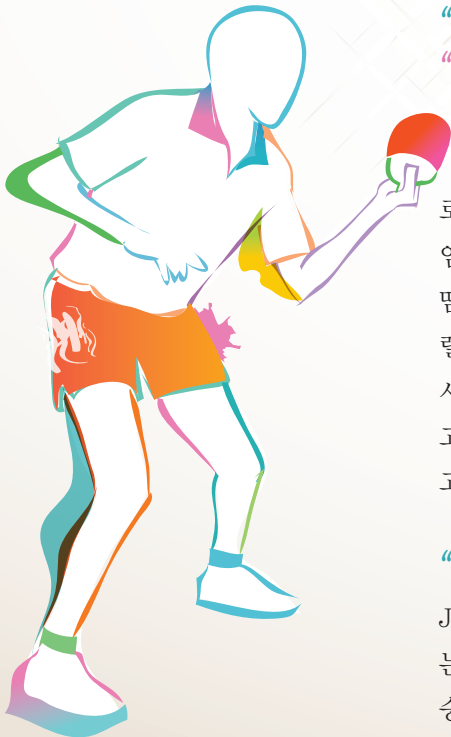
“한게임 해야지! 아~ 근데 겨울이라서 너랑 치면 땀이 안 나겠네?”

“네~ 어디 한번 해 볼까요?”

처음엔 간단히 랠리로 연습하고, 40여 분 남은 점심시간을 아끼기 위해 바로 게임으로 들어간다. 열정만 국가대표이기에 4점을 먼저 가진 나의 서브로 게임이 시작된다. 첫 번째 세트는 아깝게 11:9로 패배. 나는 한겨울인데도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해 옷을 하나 벗는다. 두 번째 세트. 몸이 풀렸는지 긴 랠리 끝에 12:12 듀스에서 사무관의 서브 실수와 나의 극적인 서브가 이어지면서 이번엔 내가 한 세트를 따낸다. 국가대표답게 올림픽에서 중국선수를 이기고 금메달을 딴 것처럼 기뻐하며, 코트 주변을 2바퀴 돈 후 옷을 하나 더 벗고 흰색 반팔 티셔츠가 흠뻑 젖은 채로 세 번째 세트를 준비한다.

“이 엄동설한(嚴冬雪寒)에 왜 이렇게 땀이 많이 나?”

J사무관이 또 다시 국가대표를 자극한다. 결국 그는 세 번째 세트에서 빈틈없는 리시브로 쉽게 한 세트를 따내더니, 네 번째 세트도 듀스를 반복하다가 결국 승리로 경기를 마무리한다. 이렇게 게임을 하다 보면 어느새 점심시간이 끝나간다. 세면장에서 동료들을 만나면 다들 나를 보고 깜짝 놀란다.





당구동호회



탁구동호회

“이 겨울에 어디서 비 맞고 왔냐?”, “쓰러지겠다.”, “살이 쪼그 빠지겠는데?” 이렇게 반응들이 다양한데, 이 중에서도 J사무관의 말이 압권이다. “아, 추워! 나도 운동 좀 했으면 좋겠다. 땀이 안 나네, 땀이~”

다음날. 전날의 패배를 인정하고, 이번엔 시원하게 탁탁 소리가 나는 왼쪽 당구장으로 발길을 옮긴다. 당사모(당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게임을 하고 있다. 한 테이블에서는 당구 200점 이상인 회원들이, 다른 쪽 테이블에서는 200점 이하인 회원들이 모여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한 후 4구 게임을 시작한다.

나는 200점 이상인 회원들과 함께 게임을 한다. 초반부터 잘 돼서 연속 6득점을 하고 있을 즈음, 옆 테이블에서 환호성이 터진다. 일명 초보 50점 회원이 프로선수들도 해결하기 어려운 위치에서 플루크(Fluke) 샷, 일명 ‘뽀록’ 샷으로 득점을 성공한 것이다. 모든 회원들이 하이파이브를 하며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게임을 하는 동안 모두들 공 하나에 마음을 싣고, 공과 함께 몸을 움직이면서, 공 때문에 웃고 운다.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을 즈음, 포켓몬스터팀 4인방이 당구장에 들어온다. 우리 청 당구장에는 3·4구 전용 테이블 2대, 포켓 전용 테이블 1대가 있다. 포켓 전용 테이블은 이 몬스터팀이 독차지하고 있다. 포켓몬스터팀 여전사의 초구로 포켓볼 게임이 시작되는데, 정말 흥미진진하게 진행되어 모두를 집중시킨다.

이렇게 깔깔거리는 웃음과 여기저기서의 감탄사가 가득한 점심시간은 너무나 빨리 지나간다. 1분이 아쉬운데 벌써 12시 55분. 스트레스를 공 하나에 모두 날리고, 왼편에서 당구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과 오른편에서 탁구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이 만나 1층으로 용기종기 올라간다. 이날 당구는 나의 승리로 끝났는데, 한 직원이 말을 걸어온다.

“원 주임, 오늘은 당구만 쳤나봐?”
“네, 어떻게 아셨어요?”
“겉뚱을 다 입고 있잖아!”

주변 직원들 모두 웃는다. 아직 추운 겨울이지만, 열정과 웃음이 가득한 광주지방기상청의 점심시간은 탁구와 당구 동호회가 있어 그 열기가 뜨겁다. 내일 점심시간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내일은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행복을 만드는 4시간의 기적

“아니, 오늘도 나왔어?”

“안되겠네. 주말에 사무실 나오려거든 방세부터 내놔.”

작년 3월, 총괄예보관에서 예보기술분석과로 근무지정을 받으면서 본청에서 주 5일 상일근무를 처음 하게 되었다. 맡은 업무가 예보 관련 신규콘텐츠를 개발하는 일이라, 국장님께서 매주 주시는 약간의(?) 부담스런 숙제를 해결하러 주말에도 계속 사무실을 나왔더니 주변 분들의 걱정과 원성이 컸다. 스스로도 충분히 쉬지 못해 하루하루 지쳐가던 터였다. 그래서 기분전환을 위해 주말에 활동할 수 있는 동호회를 인터넷에서 열심히 찾아보았다. 그러다 문득, 같이 근무했던 연구원이 봉사활동을 권유했던 생각이 나서 ‘아름다운가게’ 홈페이지를 열게 되었다.

아름다운가게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도시와 농촌 그리고 세계의 모든 나라와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그물코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모든 사람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생활 속의 작은 실천을 중요한 가치로 삼아 그 실천으로 우리 사회를 바꿔가자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이곳에서는 ‘자원봉사’라고 하지 않고 ‘자원활동’이라고 부르는데, 나눔 운동에 참여하고 아름다운가게의 목적을 함께 실현하며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활동가를 뜻하기 때문이다.



경혜미 / 총괄예보관3과

나의 작은 참여로 인해 세상이 아름답게 변한다니! 꼭 경험해야겠다는 생각에 지난해 5월, 3시간의 간단한 입문 교육을 수료하고 신대방점으로 배치를 받았다. 그 후 매주 토요일 오후마다 구매자와 기증자 응대, 매장관리, 홍보활동 등을 하고 있다.

매일 아름다운가게에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 기증품을 갖고 왔으니 물건 값을 깎아달라는 사람, 계산대에서 무작정 교환과 환불을 요구하면서 화를 내는 사람, 친환경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포장봉투가 없다는 안내에 불평하는 사람, 무엇보다 진열된 기증품들을 소중히 다루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면 속상해서 ‘에휴... 6개월만 하고 그만둬야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몸은 힘들지만 왠지 마음이 포근해지는 순간들이 점점 쌓이기 시작했다. 그러다보니 어느새 매주 토요일이 기다려지고, 사용하진 않지만 멀쩡한 물건이 어디 없나 주변을 살펴보게 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이런 걸 누가 사가거나 할까?’ 싶은 물건들을



게시판



신대방점 입구



매장 내부

“꼭 필요했는데 싸게 잘 사가요!”라고 말하며 즐거워하는 ‘구매 천사’들을 보면서 나눔과 순환의 기적도 경험하게 되었다.

아름다운가게의 판매수익금은 지역사회 의 소외계층을 돕는데 사용되고 있다. 상하반기에는 자원활동가들이 그들을 방문해 실태점검을 하고 직접 도와줌으로써 적극적인 지역사회활동에도 참여한다. 나도 작년 6월에 기회가 돼서 조순가정과 지역공부방을 방문했는데, 주변부터 돌아보고 작은 것부터 나눔을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을 더욱 하게 되었다.

기상청 직원들도 가끔 매장을 방문해 소중한 물품을 많이 기증하고 구매를 하는데 무척이나 감사하다. 한번은 동료가 안 입는 옷들을 기증하러 왔다가,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적이 있다. 그런데 얼마 후,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줄 알고 걱정한다는 것이 아닌가? 덕분에 사람들에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음을 적극 알리게 된 계기가 됐다.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생긴 이런 작은 변화가 점점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으리라 믿으며 오늘도 기쁜 마음을 안고 가게로 향한다.

아름다운가게 기증 방법

1. 직접 기증 : 가까운 아름다운가게를 방문하거나 기증함을 이용
2. 무료택배 이용 및 수거트럭 신청 : 기증품이 많을 경우 1577-1113으로 전화 문의
3.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www.beautifulstore.org)의 '기증 신청'을 클릭
4. 기부영수증 : 인수증을 작성하면 기부영수증이 발행됨
5. 기증물품 안내

가능 물품	의류, 신발, 모자, 가방, 책, CD, 그릇, 주방용품, 유아용품, 액세서리, 소형가전, 예술품, 레저용품 등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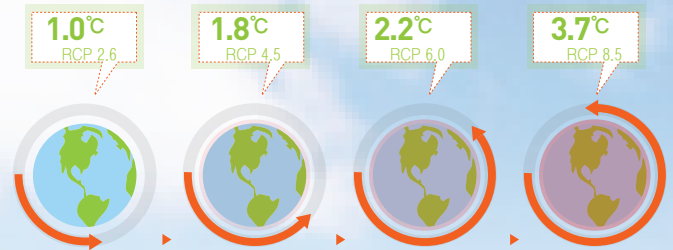
자원활동 신청 방법

1. 환경과 이웃을 위한 마음을 갖는다.
2. 전화(1577-1113)나 홈페이지(www.beautifulstore.org)를 통해 신청한다.
3. 활동천사 신입교육 1회 3시간을 수료한다.
4. 봉사하기 편한 날과 장소를 선택하여 정기적으로 참여한다.
5. 자신이 가진 재능을 활용하면 더욱 좋다.

지구는 얼마나 더 더워질까?

새로운 기후변화시나리오로 지구의 미래 기온을 예측하다

기후정책과



얼마 전 ‘미국판 설국열차’, ‘살인 한파’, ‘투모로우의 실현’ 등 온갖 수식어를 탄생시키며 103년 만에 나야아가라 폭포를 얼어붙게 만든 북미지역의 한파가 체감온도 영하 50도를 육박하는 금세기 최악의 한파로 기록되었다. 한편, 지난해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19)에서 필리핀 외교관의 눈물어린 호소로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슈퍼태풍 ‘하이옌’은 1천만여 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엄청난 위력을 보여줬다.

이러한 사건들이 다 기후변화 탓인 걸까? 그렇다면, 지구는 얼마나 더 더워질까? 누구나 궁금해 하는 질문일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지난해 9월 27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최종 승인된 ‘IPCC 제5차 평가보고서(WGI; 기후변화 과학적 근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259명(39개국)의 세계 각국 전문가들에 의해 작성되었고, 3번의 검토과정을 거쳐 승인된 것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지구의 기온은 얼마나 올랐을까?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지구온난화는 명백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상관측, 해양관측, 위성 등 지금까지의 관측자료에 따르면 지난 133년(1880~2012년) 동안 지구의 평균기온은 0.85[0.65~1.06]°C 상승하였다. 지구 기후시스템 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는 것은 기온뿐만이 아니다. 1901년부터 2010년까지 해수면은 19[17~21]cm 상승했고, 최근 상승 추세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한편, 북극해의 얼음 면적은 점차 줄어드는 중이다.

왜 지구는 점점 더 더워지는가?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의 증가이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2011년 391ppm으로 산업혁명 이전보다 40%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효과는 IPCC 제4차 평가보고서보다 43% 증가하여 2.3[1.1~3.3]W/m²으로 평가되었다. 이것은 태양 에너지가 1% 변했을 때와 비슷한 크기이다. 제4차 평가보고서 이후, 인간의 영향을 증명하는 증거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인간 활동에 의한 인위적 원인으로 기후변화가 발생된다는 사실은 95%의 높은 가능성을 갖는다.



미래 지구, 어떻게 변화하나?

감축 없이 현재와 같은 추세로 온실가스를 배출(이산화탄소 농도가 2100년 936ppm에 도달할 경우, RCP 8.5)한다면, 21세기 말(2081~2100년) 지구의 평균기온은 현재(1986~2005년)에 비해 3.7[2.6~4.8]℃ 오르고, 해수면은 현재보다 63[45~82]cm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을 상당히 실현(이산화탄소 농도가 2100년 538ppm에 도달할 경우, RCP 4.5)한다면, 평균기온은 1.8[1.1~2.6]℃, 해수면은 47[32~63]cm 정도로 상승폭을 완화시킬 수 있다.

지역적으로 예외가 있겠지만, 지구 대부분 지역에서 온난화된 기후로 인해 건조지역과 습윤 지역의 계절 강수량의 차이가 커지고, 우기와 건기 간의 기온 차이도 더 벌어질 것이다. 고위도와 적도 태평양의 경우, 강수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동아시아의 경우엔 21세기 말 연평균기온은 현재에 비해 2.4℃ 상승하고, 강수량은 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누적배출량이 많아지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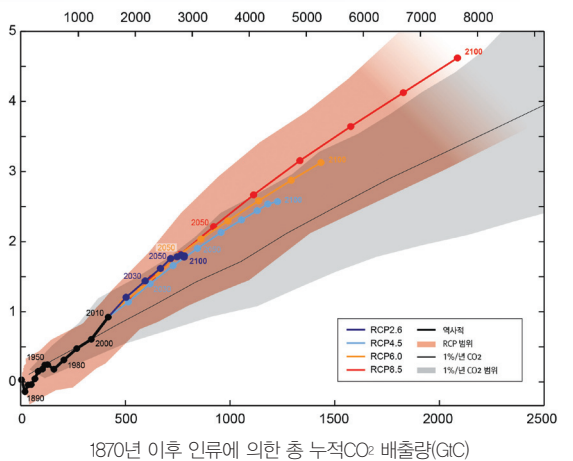
IPCC 제5차 평가보고서는 기존에 발표된 보고서와 달리, 온실가스 누적배출량과 기온 상승의 관계를 분석하여 정책적인 평가를 수행하였다. IPCC는 이 보고서를 통해 21세기 후반과 그 이후의 전지구 평균 지표온난화는 주로 이산화탄소 누적배출량에 의해서 결정되며, 온실가스의 배출이 중단되어도 기후변화의 양상은 수백 년 동안 지속될 것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제15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 총회(2009, 코펜하겐)에서 논의한 위험한계 수준인 2℃ 이하로 기후변화를 유지하려면, 산업화 이후 온실가스 누적배출량을 1000GtC로 제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산화탄소는 2011년까지 이미 515[445~585]GtC(약 55%)가 배출되어 남아 있는 누적 배출량은 약 485GtC이다.

이런 결과는 향후 국제협상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한계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2015년 종료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신기후체제 관련 협상을 앞두고 있는 지금,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정부, 산업계, 일반 국민들 모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기후변화 생태계에서 생존하려면 지구촌 구성원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

표 SPM.2 전1986~2005년을 기준으로 한 21세기 중반 및 후반 전지구 평균지표 온도와 평균해수면 상승의 변화 전망.(12.4, 표 12.2, 표 13.5)

변수	시나리오	2046-2065		2081-2100	
		평균	가능성이 높은범위 ^c	평균	가능성이 높은범위 ^c
전지구 평균지표 온도변화(°C) ^a	RCP2.6	1.0	0.4 - 1.6	1.0	0.3 - 1.7
	RCP4.5	1.4	0.9 - 2.0	1.8	1.1 - 2.6
	RCP6.0	1.3	0.8 - 1.8	2.2	1.4 - 3.1
	RCP8.5	2.0	1.4 - 2.6	3.7	2.6 - 4.8
	시나리오	평균	가능성이 높은범위 ^d	평균	가능성이 높은범위 ^d
전지구 평균 해수면 상승 온도변화(°C) ^b	RCP2.6	0.24	0.17 - 0.32	0.40	0.26 - 0.55
	RCP4.5	0.26	0.19 - 0.33	0.47	0.32 - 0.63
	RCP6.0	0.25	0.18 - 0.32	0.48	0.33 - 0.63
	RCP8.5	0.30	0.22 - 0.38	0.63	0.45 - 0.82

1870년 이후 인류에 의한 총 누적CO₂ 배출량(GtCO₂)



IPCC-보고서는

IPCC(Intergovernmental Panel for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1988년 설립 이래 25년간 기후변화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제사회에 제공하고 있다. 이번 제5차 평가보고서는 기존 온실가스 시나리오와 다른 대표 농도경로 시나리오를 채택하여,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도출하였다. IPCC 평가보고서는 3개 실무그룹 보고서와 1개의 종합보고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평가보고서는 지난해 제1실무그룹(기후변화 과학적 근거) 평가보고서 발간을 시작으로 올해 제2실무그룹(기후변화 영향·적응 및 취약성) 및 제3실무그룹(기후변화 완화)의 평가보고서와 종합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이다.

131Day!

국민과 가장 가깝게 소통하는 기상콜센터



사람들은 날씨가 궁금할 때 뉴스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일기예보를 보거나, 스마트폰으로 날씨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날씨’와 ‘기상청’ 등을 검색한다. 또한 전화 문의도 하는데, 번호 131을 누르면 기상청이 직접 운영하는 기상콜센터로 바로 연결이 된다.

기상콜센터는 2008년 여름에 개소를 한 후,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기상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다. 현재 40명의 상담사와 네 명의 전문위원이 있으며, 우리말뿐 아니라 영어와 중국어로까지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서울시 독거노인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문자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남편이 배가 안다닌대며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정말인지 날씨 좀 확인해주세요.”

“종로 경찰서인데요. 2009년 7월 14일에 비가 왔었나요? 그날 범인이 우산을 두고 갔거든요.”

“어머니가 태어나신 날을 정확히 모르셔셔요. 혹시 1940년 2월 경기도 지역에 눈이 무릎까지 내린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2009년부터는 기상콜센터의 전화번호인 ‘131’의 숫자가 담긴 1월 31일을 ‘131Day’로 정하고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1월 31일이 설날이어서, 지난 1월 28일에 여섯 번째 131Day 기념행사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하였다. 기상청과 기상콜센터 임직원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등의 콜센터 담당자와 직원들도 참여하여 보다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기상콜센터의 상담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린다. 연병장에 언제 눈이 쌓일지 묻는 군인, 날씨가 생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농·어민, 실외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 등 거의 모든 직종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문의를 해온다.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고 정확한 기상정보를 얻기 위한 이들의 연락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기상콜센터 소개





우수상담사 시상식

행사 1부에서는 기상콜센터 직원들이 직접 기획, 시나리오, 연출, 편집 등을 담당한 ‘우리 팀을 소개합니다’ 영상이 소개되었다. 목소리로만 들을 수 있던 상담사들의 반가운 얼굴을 직접 볼 수 있고, 업무 또한 재미있게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된 2부에서는 개회사로 김신호 기상산업진흥원 원장(직무대리)이 “기상콜센터는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하며 국민과 가장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기상청의 대변인입니다. 단순히 상담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심화된 상담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격려사를 한 고윤화 청장은 “국민과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예보를 위해 올해도 열심히 달려겠습니다.”라고 전하였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한 직원들에 대한 시상과 고용재 상담사의 멋진 축가가 이어졌다.

기상콜센터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기상예보에 관한 것이다. 그 뒤로 기상자료, 특보, 민원에 대한 문의가 있는데, 최근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내용도 많이 늘고 있다. 하루에 보통 3,000건의 전화가 걸려오고, 1년에는

약 100만 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한다. 가장 많은 상담이 들어올 때는 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7월-8월-4월-6월 순이다. 하루 중 가장 많은 전화는 태풍이 왔던 2012년 여름이었는데, 약 12,000건의 문의가 쏟아졌다. 예전에는 단순 날씨에 대한 문의가 많았는데, 요즘은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좀 더 전문적이고 구체화된 문의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기상정보는 기상청이 만들지만, 이를 사람들에게 직접 전파하는 일은 상담사의 몫이다. 기상콜센터는 앞으로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모든 기상정보를 알 수 있도록 상담 품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수많은 문의를 받으면서도 고객 입장에서 친절하게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기상콜센터.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전달하는 가장 가까운 소통 창구이다.



진행 - 심연 상담사



축가 - 고용재 상담사



고윤화 기상청장 격려사



현장 방문



단체 사진

LOVE IS... '끌림'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갑작스레 많은 생각을 하게 된 날이었죠.”

♥♥ He Says

같은 직장이라 자주 보게 되는 그녀에게 왠지 마음이 갑니다. 그녀는 이 마음을 알까요? 누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도 고백 한번 못해봤는데, 이번엔 좋아하는 마음이 커져서인지 용기를 내볼까 합니다. 그녀가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걱정이네요. 혹여나 거절하면 어떡하죠? 그래도 제 마음을 전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단,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는 친구의 말을 믿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번 주 토요일에 그녀를 만나기로 했죠. 물론 그녀는 이런 제 마음을 모를 겁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함께 조개와 고둥을 잡으며 재미있게 놀았죠. 저녁을 먹은 후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말이 끊어질 때마다 그녀에게 고백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렇게 계속 타이밍을 놓치다가 그녀를 바라다주는 길이었죠. 가슴이 쿵덕쿵덕 뛰어서 무슨 대화를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다 왔으며 잘 가라고 하는 그녀에게 드디어 용기를 내서 고백했습니다.

“루미야, 난 널 좋아해!”

♥♥ She Says

일하면서 친해진 그가 놀러가자고 합니다. 안 그래도 심심했는데 잘됐다 싶었죠. 그와는 대화도 잘 통하고 함께 있으면 즐거우니까요. 그렇게 낯선 곳에서 혼자 지내느라 외로운 제게, 그는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재밌게 보낸 후 집에 갈 시간이 되었죠. 그런데 그가 바라다준다고 하네요. 안 그래도 차도 끊기고 택시를 타자니 비싸서 고민됐는데 잘됐다 싶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지 않아서 운전할 수 있었거든요. 뭐, 미안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저를 데려다 주고 집에 가려면 두 시간 반은 걸릴 테니까요. 그렇게 집에 다 와서 감사의 인사를 하려는데, 그가 갑자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곤 바로 ‘부앙~’ 하며 차를 몰고 가더라고요. ‘응? 뭐지? 진심이야? 사귀자는 건가?’ 이런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에게 고백 받는다는 건... 설레는 일이지 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그를 한 번도 이성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사람을 좋아하나? 안하나?’가 아니라, ‘어떻게 거절해야 하지?’란 고민이 컸습니다. 그러다가 ‘가만, 사귀자고 한 것도 아닌데 거절할 게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잘 들어왔어요.”

♥♥ He Says

드디어 고백하고 집에 가는 길이 즐겁기만 합니다. 그녀에게서 온 문자의 반응도 나쁘지는 않네요. 기쁜 마음으로 내일 만나자고 했는데, 그녀의 반응이 싸늘해지더군요. 시내에서 보자는 제 말에 “왜요?”라는 답이 되돌아왔습니다. ‘앗,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과 함께 그녀의 마음을 알게 됐죠. 정말 하늘이 까맣게 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암흑 그 자체라고나 할까요?



♥♥ She Says

그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아직 누구 만나고 그럴 마음이 없어요.” 답장이 오더라고요. “노래 한 곡 들어봐. 버벌진트의 충분히 예뻐.” 어머... 감동적인 그 노래를 듣다 보니, 왠지 모르게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훌쩍 몇 주가 지나고, 이젠 게임초대장이 그와의 대화 전부가 되었는데요. 이상합니다. 자꾸 그와의 연결고리를 찾게 되더라고요. 고백 받을 때는 아니었는데... 왜 이제야 그가 자꾸 눈에 밟히는 걸까요?



♥♥ He Says

그녀가 제 마음을 거절했기에 계속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도 문득 ‘그녀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친구에게 술 한잔 하자 했습니다. 근데 술이 들어가니 더욱 그녀가 생각나는 겁니다. 결국 술기운을 빌려 전화를 걸었죠. 술 먹고 전화하면 안 된다는 친구의 말은 무시하고 그녀에게 전화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 She Says

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싫어요. 내 스타일 아니에요.”라고 말하면 다 잊고 정리하겠답니다. 근데 이 사람, 놓치기 싫은 겁니다. 저 말만 하면 되는데, 싫다고, 내 스타일 아니라고 하면 그만인데... 하기 싫더라고요. 전화를 끊은 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가장 컸고, 근무지를 계속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비밀연애에 대한 부담감 등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결심을 하게 됐죠. ‘그래, 마음이 가는 대로 해보자!’

♥♥ He Says

다음날, 머리를 쥐어짜며 후회했습니다. 왜 술을 먹고 그랬을까... 어제 일은 없던 일로 해달라고 문자를 보냈죠. 그런데 그녀가 새침하게 쓰아붙입니다. “없던 일로 해달라고요? 정말 그러고 싶어요?” 다행히 그녀의 반응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다시 한 번 고백해보기로 했습니다. 진심을 담아 마지막 용기를 내보았죠.

“자꾸만 생각나고 보고 싶다. 후회하지 않도록 잘할게. 평생 너만 바라볼게, 응?”

“.....좋아요~♥”



기상청 소속기관 공무원 직장협의회 출범

국가기상위성센터 공무원 직장협의회(회장 신대윤)는 6급 이하 직원 중 인사, 회계, 물품 담당자를 제외한 총 22명으로 구성되어 작년 11월 1일 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어 19일엔 많은 성원 속에 헌판식을 열고, 지난 1월 16일엔 올해 첫 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위성센터는 정규 공무원 이외에도 청원경찰, 위촉연구원 등을 포함하면 총 100여 명이 매일 호흡하는 일터이다. 따라서 정규회원의 권익은 물론, 센터 차원의 전체 의견 수렴을 위해 소통 창구 역할을 담당할 협의 위원도 지정하였다. 이를 통해 **'함께하는 직장협의회, 하나 되는 국가기상위성센터'**를 모토로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게 근무하고 싶은 직장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다.



국가기상위성센터



부산지방기상청 공무원 직장협의회(회장 박문포)는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 능력 향상 및 고충 처리 등을 통해 직원 간의 소통과 직장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작년 12월 3일 공식 출범했고, 가입대상 102명 중 96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협의회는 회원들의 불만사항 청취를 위한 **진솔한 대화의 창구**가 될 것이며, 기관장과의 협의를 자주적이고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부산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 공무원 직장협의회(회장 정광우)는 지난해 12월 4일 설립됐으며, 회원은 55명으로 구성되었다. 회원들을 위해 고충 처리 위원을 따로 두고 온라인 접수처도 마련하여, 신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협의회가 유야무야(有耶無耶) 되지 않도록 이 지면을 빌어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임원진 역시, 직장 내 **근무환경 개선과 고충 처리** 등을 위해 부족하나마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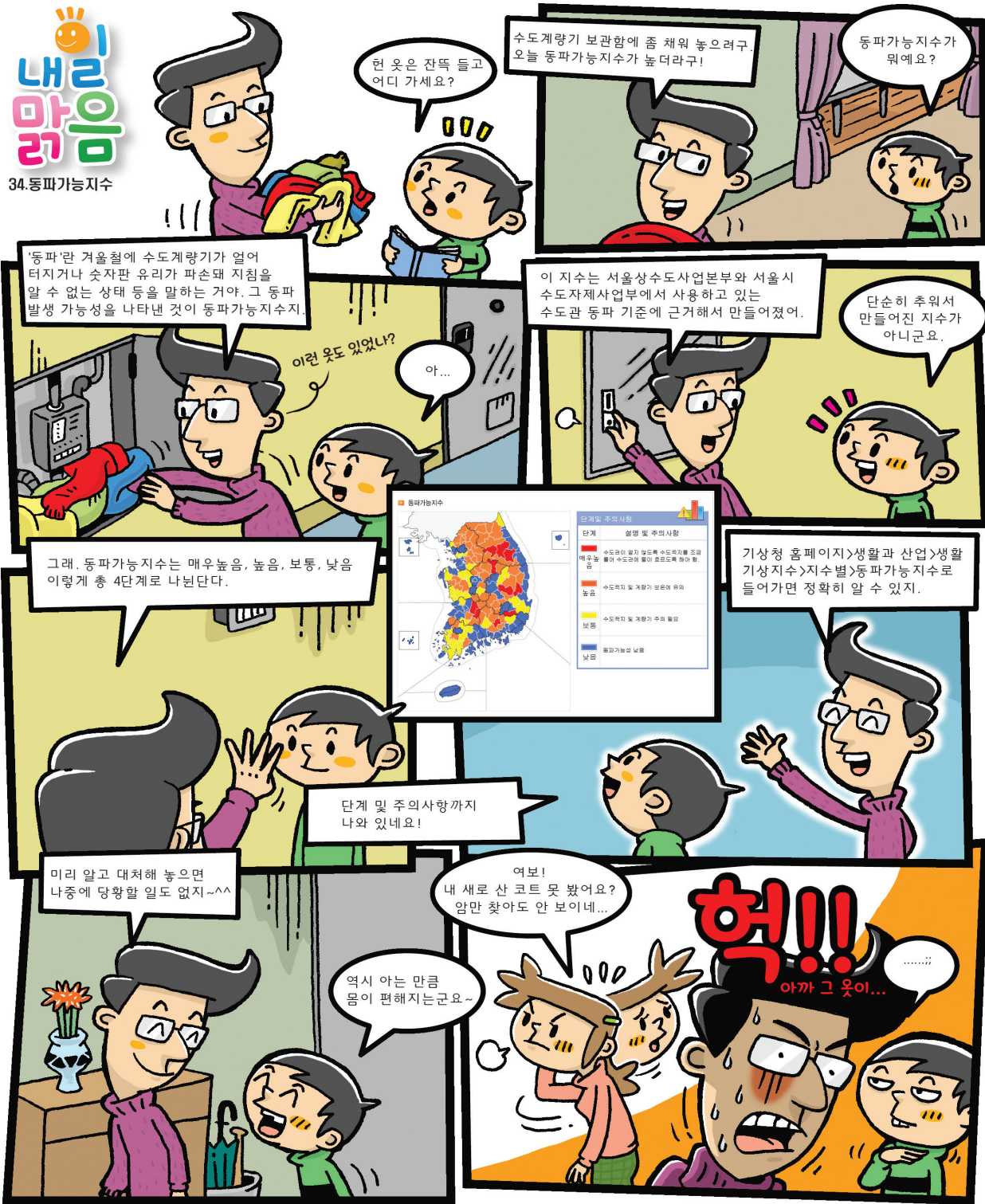
광주지방기상청 공무원 직장협의회(회장 이병철)는 지난해 12월 27일 출범했고 총 91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었다. 협의회는 회원들의 권익 보호는 물론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바람직한 공직자상 구현을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앞으로 협의회 임원진과 회원들 사이에 다양한 매개체를 활용한 소통 공간을 만들어 상하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직 발전을 위한 제안을 활성화하여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광주지방기상청

내리마음

34. 동파가능지수



한 옷은 잔뜩 들고 어디 가세요?

수도계량기 보관함에 좀 채워 놓으려구. 오늘 동파가능지수가 높더라구!

동파가능지수가 뭐예요?

'동파'란 겨울철에 수도계량기가 얼어 터지거나 숫자판 유리가 파손돼 지침을 알 수 없는 상태 등을 말하는 거야. 그 동파 발생 가능성을 나타낸 것이 동파가능지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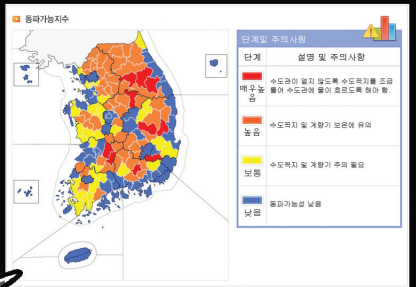
이런 옷도 있었나?

아...

이 지수는 서울상수도사업본부와 서울시 수도자제사업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도관 동파 기준에 근거해서 만들어졌어.

단순히 추워서 만들어진 지수가 아니군요.

그래. 동파가능지수는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이렇게 총 4단계로 나뉘단다.



기상청 홈페이지>생활과 산업>생활 기상지수>지수별>동파가능지수로 들어가면 정확히 알 수 있지.

단계 및 주의사항까지 나와 있네요!

미리 알고 대처해 놓으면 나중에 당황할 일도 없지 ^^

여보! 내 새로 산 코트 못 봤어요? 아마도 찾아도 안 보이네...

역시 아는 만큼 몸이 편해지는군요~

헉!!
아까 그 옷이...

기상인 신년인사회(1.8)

새해를 맞아 기상인들의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한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였다. 전직기상인과 유관기관·언론사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기상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기상청은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 있는 기상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변모하는 기상청의 살아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전합니다. | 편집진



시무식 및 국립서울현충원 참배(1.2)

기상청은 시무식에서 기상업무의 질적 도약을 위한 각오를 새로이 다졌다. 이후, 고유화 청장과 간부들은 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며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렸다.



평창동계올림픽 기상지원시스템 보고회(1.14)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스마트 기상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기관과 함께 관광·스포츠 분야의 발전 방안과 기상지원 체계 마련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10차 GEO 총회 및 장관급회의(1.14~17)

고윤화 청장은 스위스에서 열린 이번 총회에서 “차세대 위성개발계획 수행 등 향후 GEO 활동에 지속적인 지원과 기여를 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1.17)

2013년도 정부업무평가 자체 부문(행정관리역량, 주요정책) 최종평가를 위해, 국제회의실에서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1.28)

설 명절을 맞아 고윤화 청장과 조주영 차장은 각각 서울성로원과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하였다. 또한 고 청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악신사시장을 찾아가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설날 근무자 격려 오찬(1.31)

고윤화 청장은 국가기상센터를 방문하여 설 명절에도 묵묵히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럿이 하나되어 즐거운 Quiz!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머리 좀 식히면 어떨까요?
 「하늘사랑」도 읽고, 상품도 타고, 스트레스도 풀고~♪
 5분의 여유만 있으면 됩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이번 달 퀴즈

- 호숫가나 고산지대의 나뭇가지 등에 서리가 하얗게 얼어붙어 마치 눈꽃처럼 피어나는 기상현상은?
 ① 고드름 ② 상고대 ③ 용오름 ④ 눈보라
- '대구스타일'의 닭종집 골목이 있는 시장의 이름은?
 ① 평화시장 ② 행복시장 ③ 광장시장 ④ 풍물시장
- 정월 대보름의 대표적 세시 풍속으로, 논둑과 밭둑을 태워 풍작을 기원하는 놀이는?
 ① 햇불싸움 ② 맥막이 ③ 달맞이 ④ 쥐불놀이

지난 달 퀴즈 정답

- ④ 섯다운제
- ③ 윤철기삼
- ① 청마

지난 달 퀴즈 정답자

- 김태윤(서울) 2. 박순구(군포)
- 권선미(용인) 4. 홍경석(대전)
- 신채원(충북)



퀴즈 참여 방법

퀴즈 정답은 2월 25일까지 전자메일(kimhy80@korea.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기고 방법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매 정도(아래한글 10point, 줄간격 160%, A4용지 1장 반 정도)이고, 매일 20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글과 관련된 사진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채택된 외부기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인사발령

내용	일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전보	1.13	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	기술서관(담당관)	김금란	
			인력개발담당관	서기관(담당관)	안윤모	
			인력개발담당관	행정사무관	도민구	
	예보국	1.13	관측기반국	예보정책과	기술서관(과장)	김남욱
				총괄예보관과	기술서관(총괄예보관)	김현경
				수치자료통합팀	기술서관(팀장)	김동준
	국립기상연구소	1.13	관측기반국	국가태풍센터	기술서관(센터장)	신도식
				기후예측과	기상연구관(과장)	정철석
				기후협력서비스팀	기술서관(팀장)	박철홍
	국립기상연구소	1.13	관측기반국	예보연구과	기상연구관(과장)	조천호
				기후연구과	기상연구관(과장)	이중호
				응용기상연구과	기상연구관(과장)	최병철
국립기상연구소	1.13	관측기반국	기후과	기술서관(과장)	남호원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분석과	기술서관(과장)	유상진
파견	1.13	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기상사무관	전재욱	
휴직	2.9	기상청	방송통신사무관	이봉주		
파견	2.10		방송통신사무관	허성희		
			기상사무관	김병철		
파견	2.10	안전행정부	중앙공무원교육원	일반직고위공무원	임병숙	
			외교통상부	국립외교원	부이사관	이미선
			통일부	통일교육원	기상연구관	전영신
전보	2.10	국립기상연구소	황사연구과	기상연구관(과장)	임은하	
			기상청	감시담당관	기상사무관	김중광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기상연구관	방소영
			예보국	창조행정담당관	기상사무관	김성백
				총괄예보관	기상사무관	이동희
				총괄예보관	기상사무관	박영연
				예보기술편석과	기상사무관	이현수
총괄예보관	기상사무관	조익현				
수치모델개발과	기상연구관	이용희				

내용	일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전보	2.10	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	기상사무관	임덕빈	
			관측정책과	기상사무관	인희진	
			관측정책과	기상사무관	최두수	
	지진관리관	2.10	기후과학국	지진감시과	기상연구관사보	이지민
				기후협력서비스팀	기상사무관	박성찬
				기후정책과	기상연구관	홍기만
	국립기상연구소	2.10	기상산업정보화국	기상산업정책과	기상사무관	김성욱
				정보통신기술과	방송통신사무관	이세중
				기상자원과	기상연구관	이은정
				예보연구과	기상연구관	김원희
				기후연구과	기상연구관	강현식
				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	기상연구관	변재영
국립기상연구소	2.10	국립기상연구소	황사연구과	기상연구관	김승범	
			응용기상연구과	기상연구관	백형정	
			응용기상연구과	기상연구관	박영선	
			대구기상대	기상사무관	윤완선	
			예보과	기상사무관	황경아	
			전주기상대	기상사무관	정관영	
국립기상연구소	2.10	국립기상연구소	전주기상대	기상사무관	임갑근	
			고창기상대	기상사무관(대장)	김원희	
			정읍기상대	방송통신사무관(대장)	박관효	
			여수기상대	기상사무관(대장)	김승욱	
			진도기상대	기상사무관(대장)	김우철	
			서산기상대	기상사무관(대장)	이기봉	
국립기상연구소	2.10	국립기상연구소	추풍령기상대	기상사무관(대장)	윤재관	
			예보과	기상사무관	김태희	
			청주기상대	기상사무관	김성중	
			예보과	기상사무관	허윤덕	
			강원지방기상청	속초기상대	기상사무관(대장)	서광신
			대관령기상대	기상사무관(대장)	이광준	
국립기상연구소	2.10	국립기상연구소	제주지방기상청	예보과	기상사무관	현동식
			항공기상청	제주공항기상대	기상사무관(대장)	김재영
			기상산업정보화국	정보통신기술과	기상연구관	임병환
			관주지방기상청	혁신도기상대	기상사무관(대장)	이현규
			강원지방기상청	춘천기상대	기상사무관	이영호

스마트 안전귀가 서비스!

낮선 길, 어두운 길이라고 두려워 마세요.
언제나 당신의 손안에서 함께하겠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안드로이드



iOS

www.gmap.go.kr

지금 바로 다운받아
사용해 보세요!



안전행정부



소치동계올림픽 파이팅!

국민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 ◆ 대회기간 : 2014.2.7(금)~23(일) 17일간
- ◆ 개최종목 : 7종목, 98개 세부종목

